

# 濟州島地名研究

— 그 특성을 中心으로 —

沈 汝 澤

## — 目 次 —

- |                   |               |
|-------------------|---------------|
| I 序               | V 田地名의 稠密性    |
| II 地理·歷史의 背景      | VI 部落名形成의 擴大性 |
| III 地名의 分類와 그 重層性 | VII 結 語       |
| IV 固有語名의 保存性      |               |

## I 序

地名이란 文字 그대로 땅 이름이다. 人間이 이 地球上에서 땅을 利用하여 生을 營爲하기 始作하면서 地名은 생겼을 것이고 이 生活의 歷史와 더불어 發生하고 變遷을 거듭하여 왔을 땅 이름을 考察하여, 古代人의 生活樣相을 살펴 보려는 것이 地名研究 目的의 하나이다.

이 世上에는 萬物이 存在한다. 그런데 人間이 思考하고 生活하는 過程에서 萬物에 對한 區分을 하기 始作하였고, 그런 것들이 次次 多樣化되어 文化를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 區分의 方法이 곧 事物에 이름을 賦與하는 일일 것이다. 사람, 땅, 하늘의 차례로 하여 日常生活의 道具에 이르기까지 이름없는 것은 없다. 없으면 또 이름을 붙여야 한다. 이 命名作業이야말로 그대로 生活作業이라고도 할만큼 人間生活에 있어서 큰 基準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사람은 땅 위에서 棲息하면서 우선 自己가 사는 곳에 이름을 붙였고 그 範圍를 漸漸 擴大해서 일터까지 이름을 붙여 區分해 나가는 일을 했을 것은 分明하다. 사람의 知能이 發達해 가면서 첫째 人間自身에게 이름을 붙여 삶의 便宜에 썼고 그 다음 事物 하나 하나에 이름을 붙여 삶의 範圍를 擴大해갔던 것이다. 그 中の 하나가 땅에 이름을 붙인 일이다. 그것이 곧 地名이 되는 것이다.

이 地球上 人類가 棲息하는 곳에 많은 地名이 생겨났고 그것을 整理分揀함으로써 사람은 便利하게 交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地誌學 또는 地理學이 發達을 보게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와는 달리 보다 原初的인 땅 이름(地名)의 命名過程을 調查 研究하여 多方面의 生

活文化를 抽出하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地名이란 그 生活地域의 區分을 爲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地名을 區分하는데 있어 우리는 두가지 區分法으로 이를 나눌 수 있다. 첫째 形態面에서 본 名稱 卽 山, 河川, 언덕, 밭, 논, 못 등의 普通名詞와, 둘째 細分的인 特性을 지닌 漢拏山, 西歸浦, 翰林邑, 濟州島 등의 固有名詞를 들 수 있겠다. 따라서 漢拏山, 西歸浦, 翰林邑, 濟州島 등은 地域性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地域性에 屬하는 濟州島地名을 여기서 研究하려는 것이다.

이때까지 地名研究에 對한 몇몇의 論著와 論文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區分하여 보면 地名資料集, 行政區域 中心으로 나타난 古代地名의 沿革考, 地名을 語學的 面에서 分析하여 言語研究의 補助로 삼으려는 傾向等 多方面으로 地名研究가 試圖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側面을 달리하여 보다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卽 一區域의 名稱뿐 아니라 山, 河川, 田地, 池沼, 岳, 浦等 細細한 部分까지를 研究해야 地名의 本質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本稿는 濟州島의 山岳, 河川, 細細한 田地名에 이르기까지 地名의 概況을 살피고 그 特性을 抽出함으로써 地名研究의 本領에 들어가는 初步的인 作業으로 삼을까 한다.

## II 地理 歷史的 背景

濟州島의 歷史는 三姓神話에서 비롯된다. 毛興穴에서 湧出한 三神人이 碧浪國의 王女와 더불어 開國定着하였다는 이 神話는 濟州島文化의 特異성과 그 歷史의 長久함을 말해준다.

三國史記를 비롯하여 高麗史, 東國輿地勝覽 등 여러 文献에 따르면 古代 濟州島의 이름은 耽羅, 耽牟羅, 涉羅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던 部族國家로서 新羅, 百濟 등과 交通 交涉이 잦았고 高麗 忠肅王代에 이르러 高麗의 行政圈下의 一郡이 되었다.

高麗에 屬할 때까지 耽羅는 古朝鮮의 여러 部族國家들과 마찬가지로 南海의 孤島에서 獨立된 部族國家를 形成하고 本土의 諸部族國家들과 交流하면서 同一 文化圈을 形成해 온 것이라 볼 것이다. 그간 高麗時代에 約一世紀에 가까운 蒙古의 支配 乃至 影響을 받았고 또 그칠 새 없는 倭寇의 侵入이 있었지만 高麗는 이를 물리치고 本土에 歸屬 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耽羅國 當時의 固有文化에 多少 外部의인 蒙古, 倭의 影響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亦是 古代 部族國家로부터 三國時代에 이르기까지 여러面에서 交流가 잦았고 高麗에 歸屬以後 卽 本土와의 交流에 因하여 그대로 本土文化를 繼承發展시켜 왔다고 보겠다.

특히 言語面에서 볼 때 가장 根源的인 우리 國語를 濟州島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點에서도 그 증거는 充分하다고 보겠다. 지금은 오히려 本土보다도 더욱 우리의 古文化를 많이 保存

하고 있는 곳이 濟州島가 아닐까 생각된다.

或者는 濟州島의 生活樣相이 日本風이나 蒙古風이나 하기도 하나 濟州島를 잘 理解치 못하고 하는 말 들이다.

모든 文獻이 立證하고 現地 住民의 生活文化가 立證하듯이 濟州島는 어디까지나 韓國의 貴重한 文化領域의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濟州島研究는 文化面에서나 産業面에서나 어 느긋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임을 새삼 느끼게 한다.

濟州島는 韓國의 最南端에 位置한 韓國第一의 큰 섬이다. (現在 人口 約 40萬名) 그 面積은 約1819km<sup>2</sup>로서 東西로 약간 긴 橢圓形을 이루고 있다. 섬 全體는 옛날 火山이 폭발하여 溶岩이 흘러내린 흔적이 많이 보인다. 섬의 中心을 이루고 있는 것은 漢拏山(標高 1950m)이며 山의 四圍가 緩漫하게 들판으로 떨어내려지고 있으나 南쪽은 北에 比해서 약간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西南쪽 海岸을 따라 넓은 平野가 펼쳐져 있다.

섬의 海岸을 따라 많은 部落이 形成되어 있고 中山間쪽으로 갈수록 그 分布는 점점 희박해진다.

濟州島는 火山의 폭발로 因하여 屈曲과 起伏이 多樣한 地勢를 形成하고 있으며 約 300餘個의 높고 낮은 오름(岳)이 있다. 그리고 河川은 大部分 漢拏山과 그 주위의 山岳에서 發源하여 四方으로 흘러 바다에 이른다. 이 내들은 大部分 乾川이고 常時 흐르는 내는 드물다. 그러나 한 번 큰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 瀑布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범람하여 交通이 遮斷되는 수도 있다. 비가 온 뒤에 河川으로 모여든 물은 일단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나머지 물들은 地下로 깊이 滲流되었다가 低地帶인 海岸에서 다시 湧出된다. 더러는 潛流하다가 이곳 저곳의 地下水路를 따라 山野에서 湧出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部落들은 하천을 따라 形成되기 보다는 물의 湧出地를 따라 形成된 곳이 많다. 또 물 없는 곳의 部落은 「奉天水」라 하여 빗물을 貯藏하는 溜水池를 만들어 生을 營爲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濟州島는 물이 귀한 곳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水資源을 開發하여 中山村 어느 곳에 가도 簡易水道가 가설되어 있고 하여 물의 革命을 이루고 있어 음료수 條件이 部落形成과 관계없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地質의 與件으로 濟州島의 耕地는 예나 지금이나 大部分 밭이고 논은 극히 적다. 土質은 玄武岩의 風化된 것과 火山灰土로 이루어 졌으며 黑褐色을 내는 黑土가 많다. 그래서 土質은 海岸에 가까울수록 肥沃하여 農耕에 適合하고 漢拏山에 가까울수록 각박하다. 그러므로 農耕地는 海岸線에서 約 200m乃至 250m 高地內에 分布되어 있고 이 地帶를 넘으면 漢拏山麓近處까지 牧養地 또는 林野로 되어 있다.

島民의 主生業이 農業인 만치 部落들도 農耕에 適合한 地帶에 分布하게 마련이고 海岸地帶는 交通이 便利하고 農漁業을 兼할 수 있으므로 聚落의 密集이 짙다.

## Ⅱ 地名の分類와 그 重層性

### 1. 分 類

무릇 어떤 事物의 研究에는 그 先行的 手續으로 分類가 必要하다. 分類는 事物의 特性을 認識하고 一定한 基準에 따라 그 種類를 나누는 것이다. 地名研究에 있어서도 역시 分類가 先行되어야 하며, 그것은 그 基準에 따라 여러가지 分類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分類에 있어 우리가 重視하여야 할 것은 一般民衆의 分類意識이다. 그것은 그들의 生活, 地勢觀察, 그 利用 및 命名의 動機등과 直結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一般民衆들의 分類 基準은 어떤 것일까. 細細한 分類에 이르면 달라 지지만, 그 一次의 分類 基準은 地形의 생김새와 그 利用의 用途에 있는 듯하다.

우리가 사는 땅은 起伏深淺이 多様하다. 혹은 높이 솟아오른 곳도 있고, 평평하고 넓은 곳도 있으며 알게 되어서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곳도 있다. 人間은 이 地勢의 生김새를 區別하여 山平野, 못, 내와 같이 命名했다. 그런데, 人間의 觀察은 섬세하여서 높이 솟아오른 지형도 그 높낮이에 따라 區別하여 山(山), 오름(岳), 언덕(丘)과 같이 區分했고, 알게 패여 물이 고인 곳도 그 大小深淺에 따라 소(沼), 못(池), 늪, 웅덩이와 같이 細分해 갔으며, 내 종류도 그 大小長短에 따라 江, 내(川), 시내, 개울과 같이 細分하여 갔다. 이런 分類는 地勢를 基準으로 하여 나눈 것이다. 이 分類의 細目을 概括하면 山岳名 河川名, 池沼名의 項目을 얻게 된다.

한편 人間은 이 地面을 여러가지로 利用하여 生活을 營爲해 왔다. 우리나라와 같은 農耕文化 民族은 主로 平地에 住居 定着하고 이 平地를 밭으로, 논으로 개척하고 開墾이 不適合한 곳은 家畜의 牧養地로 또는 林野로 利用했다. 그리고 生活의 편의를 위하여 道路를 내고 住宅이 增加함에 따라 하나의 部落이 形成되기에 이르렀다. 그 部落이 해변에 位置했을 경우에는 漁業을 兼하게 되어 船舶의 出入口로 海岸線의 屈曲을 利用하게 되니 浦, 港이 그것이다. 이처럼 地形 地物을 그 利用의 性質에 따라 各各 이름을 붙여 갔다. 이들중 垆地, 논, 밭, 牧野, 林野의 이름은 田地名이라 概括하고, 나머지는 道路名, 浦港名으로 大別해서 좋다.

前述한 山岳名, 河川名 地沼名은 지형의 生김새를 基準한 것이므로 地形地名이라 한다면 이 田地名, 道路名 浦港名은 地形 利用의 用途를 基準으로 한 呼稱이므로 利用地名이라 할 수 있다.

部落名은 利用地名임에는 틀림없으나 위의 諸地名과 같이 어느 一地點을 指稱하는 一次的 地名이 아니라 聚落의 內部 또는 聚落을 中心으로 한 一定境內의 山岳, 河川, 池沼, 道路, 田地 浦港名等 全體를 包括하는 性質을 가진 後代의 命名이다. 이 部落名은 自然部落名으로서 民衆

속에서 自然發生한 것이지만 行政體制의 確立에 따라 이루어진 里, 洞名, 邑, 面名, 市, 鄕名 道名 등은 地名임에는 틀림 없으나, 태반이 人爲的으로 이루어진 行政地名이다. 이것들도 細部 地名을 包括하는 性質을 가졌으니, 이들은 包括地名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地名의 一般의 一次의 分類는 濟州島의 경우에도 그대로 適用된다. 以上の 分類를 要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I. 地形地名
  - 1. 山岳名—山, 岳, 丘…
  - 2. 河川名—河, 川, 시내…
  - 3. 池沼名—沼, 池, 늪…
- II. 利用地名
  - 1. 田地名—밭, 논, 牧野, 林野…
  - 2. 道路名
  - 3. 浦港名
- III. 包括地名
  - 1. 部落名
  - 2. 行政區域名

## 2. 重 層 性

以上の 分類에서 얻은 諸 項目의 相互關係를 좀더 檢討하여 보자. 濟州市 老衡里 廣坪部 落을 例로 삼는다.

老衡里는 濟州市街에서 西쪽으로 約 4 km 떨어진 中山間 農村이다. 이 里는 現在 노형(老 衡), 다랑곳(月郎), 정준이(正尊), 너븐드르(廣坪), 방이리(方日), 뭇름(月山) 등 6個의 自然部 落으로 이루어져 있다. 例의 너븐드르(廣坪部落)는 다시 웃가름(上部落) 중(셋)가름(中部落), 알가름(下部落), 셋가름(西洞)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가름>이 垆地, 田地, 山岳, 河川, 池沼 道路 등으로 細分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地名面에서 말한다면 道名→市名→里名→自然部落名 →山岳, 田地 등의 細部地名과 같은 關係가 된다. 그런데 이것을 逆으로 생각하면 山岳, 田地, 池沼等 細部落名은 알가름, 중가름等 細部落名에 包括되어 있으며 自然部落名은 行政里名에, 市名에, 道名에 各各 包括되어 있는 셈이 된다.

이 包括關係는 조금더 깊이 생각하면 單純한 包括이 아니라 重層關係에 있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이 部落의 알가름에 있는 “뭇밭”에서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하자, 質問者가 “너븐 드르 알가름”임을 아는 者라고 認定되면 應答者는 “뭇밭”이다라 答할 것이요 萬一 너븐드르까 지밖에 모르는 者라 認定되면 “알가름”이다 할 것이요 그것도 모르는 者라 認定되면 “너븐드 르”다 라고 答할 것이다. 이 質問者와 質問의 性質의 認識에 따라서 같은 地点의 名稱을 “老衡 里”다 “濟州市”다 까지 나올 수가 있다. 이는 한 地点의 地名이 하나가 아니라 몇개이고 重層 되고 있음을 意味한다. 다시 말해서, 山岳名, 田地名, 池沼名等 細部地名은 가장 基盤地名으로

第一段階의인 것이요, 細部落名은 第二段階의인 것으로 그 위에 重疊되어 있고, 自然部落은 第三段階로 重疊되어 있으며, 行政里, 洞名은 第四段階로, 이렇게 하여 面, 市, 郡, 道名이 重疊되어 있는 것이다. 이 同一地點의 地名이 여러 점으로 重疊되는 性質을 重疊性이라 부르려는바, 이는 地名의 本質이요 特性인 것이다.

#### IV 固有語名の 保存性

濟州島의 地名을 그 言語面에서 分類하면 3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 A. 漢字語名으로 呼稱되는 地名
- B. 漢字語名과 固有語名 두가지로 호칭되는 地名
- C. 固有語名만으로 호칭되는 地名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말이 言語系統上으로 보아 中國語와 다르고 中國의 漢字가 輸入되자 우리의 言語에 漢字語가 점점 增加해 왔음은 常識이지만, 地名에 있어서도 순 우리말인 固有語로 불리우던 것이 漢字가 輸入되고 그것이 公用文字化 하자 漢字名化해 갔음을 쉽게 推測할 수 있다.

따라서 漢字地名이 많으면 많을수록 漢字文化의 侵蝕을 그만큼 많이 받은 셈이 되고 固有語地名이 많으면 많을수록 固有文化를 그만큼 많이 保存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濟州島는 위의 地理, 歷史的 背景에서 叙述한 바와 같이 絶海孤島요, 中央文化와 遠隔하여 있는 관계로 漢字文化의 影響이 적었으리라 생각되며 따라서 地名에 있어서도 固有語名이 많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實際로 漢字語名으로 된 地名과 固有語名으로 된 地名이 어떤 樣相으로 現在 使用되고 있는가 이를 分類別로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 1. 山 岳 名

- A. 漢字語名으로 呼稱되는 것

漢峯山, 山房山, 軍山, 城山峯, 沙羅峯, 立傘峯, 瀛洲山, 三梅峯,

- B. 漢字語名과 固有語名 두가지로 呼稱되는 地名

베리오름 (禾北峯)	어스승 또는 어시생 (御乘生岳)
도들봉 (道頭峯)	성널오름 또는 성오름 (城板岳)
서무오름 (牟峯)	큰물미 (大水山峯)
물미오름 (小水山峯)	토산망 (兔山峯)

갈른오름 (並岳)

C. 固有語名만으로 呼稱되는 地名

통오름 (關山里所在)	소로기동산 (一徒里所在)	붉은오름 (奉蓋里所在)
흙붉은오름 (我羅里所在)	얼안지오름 (吾羅里所在)	거문오름 (蓮洞里所在)
남주순오름 (蓮洞里所在)	노리소니오름 (蓮洞里所在)	염봉매오름 (蓮洞里所在)
흙붉은오름 (橋來里所在)	개죽은산전 (北村里所在)	알바메기오름 (善屹里所在)
웃바메기오름 (善屹里所在)	당오름 (善屹里所在)	가시네오름 (臥屹里所在)
바늘오름 (臥屹里所在)	괴꼬리오름 (威德里所在)	식은이오름 (德天里所在)
채오름 (德天里所在)	돛오름 (松堂里所在)	문석이오름 (松堂里所在)
아보름 (松堂里所左)	백약이오름 (松堂里所在)	큰돌임이 (松堂里所在)
작은돌임이 (松堂里所在)	비치미 (松堂里所在)	민오름 (松堂里所在)
척오름 (松堂里所在)	거친오름 (松堂里所在)	밭돌어름 (松堂里所在)
뿔꾸부니 (松堂里所在)	안돌오름 (松堂里所在)	안진오름 (松堂里所在)
소머리오름 (演坪里所在)	둔지오름 (終達里所在)	은들오름 (終達里所在)
전이미 (始興里所在)	뒤고부니 (水山里所在)	늑고지동산 (新川里所在)
갑선이오름 (加時里所在)	설오름 (加時里所左)	따리비 (加時里所左)
큰사스미 (加時里所在)	죽은사스미 (加時里所在)	영아리오름 (加時里所在)
셋망오름 (加時里所在)	셋기오름 (城邑里所在)	개오름 (城邑里所在)
좌보미 (城邑里所在)	쇠오름 (兎山里所在)	매오름 (表善里所在)
여찌리오름 (新興里所在)	보리오름 (新禮里所在)	쌀오름 (西歸邑所在)
달암이 (新孝里所在)	괴사리오름 (道順里所在)	어점이오름 (瀛南里所在)
왕이매 (廣坪里所在)	죽은대비오름 (廣坪里所在)	거린오름 (東廣里所在)
정물오름 (東廣里所在)	남송이오름 (西廣里所在)	광창이오름 (西廣里所在)

〈以上은 現在 調査된 島全域의 山岳名에서 뽑은것〉

以上 3 類型의 山岳名을 列擧하였는데, 여기서 첫째 눈에 띄는 것은 그 數에 있어서 純國語의 山岳名이 絶對多數라는 것이다.

이 資料는 이제까지 調査된 資料中에서 A, 와 B, 는 全部 收錄한 것이요, C, 는 그 一部分을 뽑아 놓은 것이다. A, 는 不過 8 個이고 B, 는 9 個인데 장차 더 細密한 조사를 하면 더 많은 數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純國語山岳名처럼 많은 이름을 얻을 수는 도저히 없다.

둘째 漢字로 表記되고 漢字語音으로 呼稱되는 것은 漢拏山, 瀛洲山, 山房山과 같이 古來로 有名했던 山岳들이요, 漢字表記名과 純國語名이 併存하는 것은 御乘生岳, 九十九谷들과 같이 近來에 와서 有名해지고 公用名稱으로 呼稱할 必要가 생긴 것들이다.

이에 比해서 純國語名으로만 呼稱되는 것들은 嶽峰메오름, 노리소니오름...등과 같이 群少山岳들로서 道民의 日常生活에는 關係하고 있으나 公的, 行政的, 國家的인 레벨까지 이르지 못한 山岳들이다.

結局 山岳名은 道民의 生活속에만 잠겨 있는 것은 純國語 名稱만이 있고, 이것이 公的, 行政的, 國家的 레벨까지 올라가 呼稱될 때 漢字名化하는 것이다.

山岳名이 行政的으로 活用하게 된 것은 近代의 일이고, 또 濟州島의 山岳名이 漢字로 表記해야 되리만큼 有名한 것은 數個에 지나지 않으므로 濟州島의 山岳名들은 大部分 純國語로 된 原名의 形態를 그대로 保存하고 있게 마련인 것이다. 이것은 濟州島의 山岳名의 한 特性이라 할 수 있다.

## 2. 河 川 名

### A. 漢字語名으로 呼稱되는 것

없음

### B. 漢字語名과 固有語名 두가지로 呼稱되는 것

없음

### C. 固有語名만으로 呼稱되는 것

가락곶물 (二徒里所在)	남수자내 (二徒里所在)	범문내 (龍潭里所在)
한내 (龍潭里〃)	베릿내 (禾北里〃)	등맹이내 (三陽里〃)
삼수선내 (道連里〃)	음나물내 (道連里〃)	배으내 (道連里〃)
종인내 (道連里〃)	가마물내 (道連里〃)	무드내 (奉蓋, 龍岡里〃)
소물내 (濱坪里〃)	도감내 (老衡里〃)	말머릿내 (老衡里〃)
무스내 (海安里〃)	원장내 (老衡里〃)	웃내 (新豊里〃)
안진내 (加時里〃)	솔내 (加時里〃)	산내 (城邑里〃)
섯내 (南元里〃)	마는내 (爲美里〃)	쇠돈내 (爲美里〃)
정술내 (南木里〃)	숫발내 (西洪里〃)	쇠돈큰내 (下孝里〃)
진진내 (好近里〃)	가린내 (好近里〃)	큰내 (江汀里〃)
아곤내 (江汀里〃)	도래물 (回水里〃)	창고내 (倉川里〃)
붉은내 (高山里〃)	간남내 (翰林邑〃)	정지내 (於道里〃)

〈以上은 現在 조사된 島全城의 河川名에서 뽑은 것임〉

보는 바와 같이 河川名에 있어서는 A, B는 없고 C만이 있다. 여기 C로 整理하여 놓은 河川名도 地圖, 또는 行政上의 名稱으로는 漢字語名으로 만든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한내—漢川, 모스내—無藪川, 도그내—都近川 또는 外都川 등과 같다. 그러나 이 漢字語 河川名은 文書用,



行政의 公用名稱으로는 쓰이나 一般言衆에게 生疎하여 現在도 日常生活에 通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C로 處理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山岳名에 있어서는 漢字語名이 몇개 있는데 河川名은 漢字語名이 通用되지 않은 것은 濟州島의 河川이 작고 짧을뿐 아니라, 乾川이어서 本土의 江에 比할 程度의 것이 못되며, 따라서 漢字語名 이에로부터 붙여지지 않았고 近代에 와서 近代式 橋樑을 架設하면서 漢字語名이 公式名稱으로 命名되어 겠으나 아직 言衆에게까지 一般化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濟州島의 河川名은 아직 모두 固有語名만이 있다 해서 좋다.

### 3. 池 沼 名

#### A. 漢字語名으로 呼稱되는 地名

白鹿潭 (漢拏山頂所在)      婚姻池 (溫坪里所在)

#### B. 漢字語名과 固有語名 두가지로 呼稱되는 地名

용소 (龍淵) (龍潭里所在)

#### C. 固有語名만으로 呼稱되는 地名

골각물 (一徒里所在)	수수못 (濱坪里所在)	빌레못 (朝天里所在)
붉은못 (坪垵里〃)	낮물 (下道里〃)	누르못 (水山里〃)
한질ㄹ못 (水山里〃)	도리못 (水山里〃)	간돈이못 (新陽里〃)
선구못 (상찬리〃)	웃섬구못 (상찬리〃)	알성구못 (상찬리〃)
셋성구못 (상찬리〃)	가산곳못 (동일리〃)	골물 (九德里〃)
송당못 (무릉리〃)	자릉못 (무릉리〃)	구남못 (무릉리〃)
고바친물 (보성리〃)	홍구물 (보성리〃)	생이물 (인성리〃)
유남못 (신도리〃)	맨츠남못 (신도리〃)	한진못 (신평리〃)
돛귀못 (영락리〃)	서릿물 (日果里〃)	두머니물 (고산리〃)
황넷물 (고산리〃)	팽쟁이물 (고산리〃)	불그못 (청수리〃)
임니물 (下貴里〃)	쇠죽은못 (下加里〃)	신이물 (귀덕리〃)
검은소 (노형리〃)		

〈以上은 現在 調査된 島 全域의 池沼名을 뽑은 것이다〉

A의 白鹿潭은 漢拏山 정상에 있는 噴火口로서 古來로 有名한 觀光地여서 예로부터 漢字名이 命名 되었고, 婚姻池는 耽羅國의 始祖 三神人이 婚姻했던 곳이라는 못으로서 本來 固有語名이 있었으나 지금은 망각되고 傳說과 함께 漢字名으로 呼稱되고 있는 것이며, B의 용소는 濟州十景의 하나인 「龍淵夜帆」의 景勝地에서 古來의 風流客들이 漢字語名을 부쳐놓은 것이다. 이를 陰外하면 모든 池沼가 民間의 生活과 관련을 맺을뿐 漢字知識層과의 交涉이 적었기 까닭에 現

在도 모두 固有語名으로만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 4. 田 地 名

##### A. 漢字語名으로 呼稱되는 地名

없음

##### B. 漢字語名과 固有語名 두가지로 呼稱되는 地名

없음

##### C. 固有語名만으로 呼稱되는 地名

고상이구름왓	고맹이왓	베기왓	막산이왓
총독이왓	기정밭	당낫굴왓	양해물왓
사슴모들왓	돛뺑디왓	찬동이왓	개여불
백테왓	아시내왓	안아시내왓	양고부영밭
소송밭	귀양밭	괴왓	치두구왓
구맹이왓	원가슬밭	옹탱이왓	물아진밭
장수굴왓	서간이왓	참남왓	웃방왓
웃옹시왓	중이굴왓	고길새왓	고노귀왓
종지왓	새구름밭	골챙이왓	곶뉘밭
버리장밭	영겻이왓	자구리왓	조보기왓
바령밭	물미왓	음산이왓	선돌왓
고빈자밭	남죽밭	화성밭	무래처왓
병술터	엇밭	버드남밭	우감상밭
혹구지왓	홀밭	세정밭	데세기왓
웃집터	실드르	곶가실왓	사당우영
불간터	당앗밭	센드르	얼컨뎡이왓
짐중성밭	중케왓	작대기왓	데싱근밭
허문터	너삼밭	신평이왓	구링금
알민밭	활테왓	네것밭	큰뺑디왓
작별왓	굴너븐밭	통물밭	데도밭
용액이왓	절왓		

<以上은 濟州市附近의 老衡里, 蓮洞里, 吾登里, 濱坪 4 個里를 中心으로 調査한 것 中의 一部이다>

田地名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A, B는 全無하고 C만으로 불리우고 있다, 田地는 本來 漢字知識층과 關聯이 적고, 그 名稱을 漢字로 記錄할 必要도 적은 것이다.

近代 行政體系가 確立되어 田地를 命名 區分 表示할 必要가 생긴 때에는 벌써 田地名대신 田地의 番地로서 數字化하여 區分 表示했기 때문에 田地名은 近代的 行政에서도 全然 度外視해버린 地名이다. 따라서 田地名은 農民만이 使用하고 傳承시켜온 地名이며 地域性이 뚜렷한 것으로 아직도 農民들은 行政에서 地番을 쓰듯 田地마다 固有田地名을 붙여 使用識別하고 있다. 이 田地名도 차차 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5. 部 落 名

部落名은 自然部落名과 行政里名으로 나누인다. 濟州島의 行政里는 1個의 自然部落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數個의 自然部落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1個의 自然部落이 한 行政里로 된 경우는 그 自然部落名이 應當 行政里名이 되고 數個의 自然部落이 한 行政里로 된 경우는 그 中의 한 自然部落名이 行政里名으로 되는 일이 一般的이다.

이 自然部落名과 行政里名이 어떤 類型으로 되고 있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 漢字語名으로 呼稱되는 것

#### 가. 自然部落名

明道岩      竹城

#### 나. 行政里名

一徒里      二徒里      三徒里      健入里      龍潭里      回泉里      道南里  
蓮洞里      老衡里      海安里      道頭里

### B. 漢字語名과 固有語名으로 呼稱되는 것.

#### 가. 自然部落名

새정드르	興雲洞 (제주시용담리)	다끄내	修根洞 (제주시용담리)
가물개	甘水洞 (제주시삼양리)	들은돌	舉石洞 (제주시삼양리)
버랑	伐浪洞 ( " )	가시나물	加時洞 (제주시영평리)
장구왓	長久洞 (제주시아라리)	구오름	開洞 (제주시아라리)
인다라	仁多洞 ( " )	걸머리	巨馬洞 ( " )
간드닥	看月洞 ( " )	베리왓	硯田洞 ( " )
ㄱ다시	並多洞 (제주시오동리)	오도름	吾道洞 (제주시이호리)
굴동내	掘洞 (제주시이호리)	굴왓	蘆田洞 ( " )
물래풀	沙水洞 (제주시도두리)	다위	多好洞 (제주시도두리)
모로넷가름	牟老洞 (제주시오라리)	연미	淵味洞 (제주시오라리)

동도노미	井實洞 (제주시오라리)	중맹이굴	月龜洞 (제주시오라리)
아읍굴왓	九耳田洞 ( " )	배도리	星斗洞 (제주시연동리)
논다리	飛月洞 (제주시연동리)	다랑굿	月郎洞 (제주시노형리)
정준이	正尊洞 (제주시노형리)	방일이	方日伊 ( " )
너븐드르	廣坪洞 ( " )	이승이	梨生洞 (제주시도평리)
버쟁이왓	新山洞 (제주시도평리)	창오랭이	蒼梧洞 ( " )
가문모살	玄沙洞 (제주시이호리)		

## 나. 行政里名

멜도	禾北里 (제주시화북리)	거리	巨老洞 (제주시화북리)
설개	三陽里 ( " 삼양리)	도런드르	道連里 ( " 도련리)
봉아름	奉蓋里 ( " 봉개리)	웃무드내	龍崗里 ( " 용강리)
다라굿	月坪里 ( " 월평리)	알무드내	寧坪里 ( " 영평리)
아라위	我羅里 ( " 아라리)	오드싱	吾登里 ( " 오등리)
오라위	吾羅里 ( " 오라리)	뱅디	都坪里 ( " 도평리)
도그내	外都里 ( " 외도리)	백개	梨湖里 ( " 이호리)

## C. 固有語名만으로 呼稱되는 것.

## 가. 自然部落名

한데기 (제주시용담리)    먹돌생이 (제주시용담리)    어영 (제주시용담리)

## 나. 行政里名

없음

以上은 濟州市管內의 行政里名과 自然部落名만을 分類하여 옮겨 적은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行政里名과 自然部落名은 그 類型에 있어 다른 點을 發見할 수 있다. 即 行政里名은 漢字語名만으로 呼稱하는 것이 많고 自然部落名은 漢字語名만으로 呼稱하는 것이 극히 적다. 그리고 漢字語名과 固有語名으로 呼稱하는 것은 行政里名이나 自然部落名에 다같이 있다.

이들中 漢字語名만으로 呼稱되는 것은 一徒里, 二徒里, 龍潭里와 같이 行政地名化한지가 오랜 것이거나, 새로 창작해 놓은 里名들이요, 漢字語名과 固有語名이 共存하는 것은 公的인 行政地名으로 登場되면서 固有語名을 漢字로 借字表記한 것이 大部分이다. 結局 部落名의 漢字語地名化는 公的, 行政的 地名으로 登場되면서 形成된 것이다. 따라서 本來의 自然部落名은 固有語名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近來 行政의 치밀성 때문에 細細한 自然部落名까지 漢字表記가 必要하게 되어 現在는 거의 모든 自然部落名이 漢字로 表記하게 되었다. 그러나 公的文書에는 漢字로 表記하고 있지만은 一般 言衆들의 生活에서는 漢字語名 보다 固有語名을 使用하고 있으

며 漢字語名은 아직도 生疏한 感을 주고 있다.

以上 山岳名에서 部落名까지 보아 왔는데 이를 綜合하면 다음과 같은 點을 指摘할 수 있다.

- ① 山岳名은 多少 漢字語名化한 것이 있으나 固有語地名이 絕對多數를 占하고 있다.
- ② 河川名은 公的文書의 表記의 必要에서 漢字語名을 借字表記하고 있으나 아직 固有語名이 一般化 되어 있다.
- ③ 池沼名은 古來로 有名한 몇개의 池沼를 除外하면 모두 固有語名으로 불리우고 있다.
- ④ 田地名은 漢字語名이 全然 없고 固有語名만이 있다.
- ⑤ 部落名은 行政上 必要에서 漢字語名이 形成되고 現在 漢字語名과 固有語名이 並存하고 있다.

이와 같이 行政上의 必要, 公的文書의 表記의 必要에서 地名이 漢字語名化하고 있으나 行政面에 關係 깊은 部落名을 除外하면 濟州島의 地名은 거의 固有語名을 그대로 保存하고 있다. 그것은 特히 田地名, 池沼名, 河川名等に 顯著하다.

이렇게 漢字文化의 侵蝕을 덜 받고 아직 固有語地名을 순수하게 保存하고 있다는 것은 濟州島地名의 한 特性이다.

## V 田地名의 稠密性

### 1. 田地名의 發生

위에서 筆者는 地名을 分類하되 地形地名, 利用地名, 包括地名의 세가지로 一次 分類하고 다시 地形地名을 山岳名, 河川名, 池沼名으로 利用地名을 田地名, 道路名, 浦港名으로, 包括地名을 部落名, 行政區域名으로 各各 分類했었다. 이러한 分類는 一般民衆들의 地形의 區分, 利用의 用途等の 分類基準에서 나눈 것이지만 이 分類는 그 地名 命名의 動機로 보아서는 各各 다름을 理解할 수 있다.

地形地名은 地形의 생김새의 觀察에서 그 各各의 相異함을 識別한 것인데, 이는 生活에 있어서의 目標物의 記號로서 利用하기 위한 것이 主動機인듯 하다. 地面의 어느 地點을 가리키기 위하여 ○○山, ○○오름, ○○내, ○○못等으로 뚜렷한 地形의 特徵을 記號化 시켜 傳達하면 그것을 目標로 하여 鮮明히 그 地點을 識別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地點의 識別은 旅行이나 狩獵等 移動生活에 甚히 所用된다. 이런 動機의 地名은 目標로서의 地形地物을 鮮明히 指稱하여 한 地點을 正確히 傳達하면 그것으로 目的은 達成된다. 따라서 이 地形地名은 地面에서의 區劃이나 境界를 明確히 해야할 必要性은 그다지 없다.

이에 比하여 利用地名, 그중에도 田地名은 그 命名의 動機가 다르다. 田地는 主로 平地를 利

用한 것이고 그것은 開墾하여 논이나 밭으로 利用하는 것이다. 이 利用은 個人이나 혹은 集團의 占有로서 시작되고, 그 占有地域을 他人의 것과 區分하기 위하여 命名이 必要하게 된다. 따라서 田地名의 命名은 地形地名의 命名과 같이 目標物의 記號化로써 한 地點을 識別 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占有地域의 境界와 區劃을 分明히 識別케 하는데 있다. 그래서 尙장 其他로서 그 區域을 지워 놓게 되고, 田地名은 그 區劃內의 全域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된다. 地形地名이 地點地名이라 한다면 田地名은 地域地名이라 할만한 것이다. 田地名은 이와 같이 占有地域의 傳達이라는 그 命名의 動機가 있다. 土地를 占有하여 논이나 밭으로 利用한 것은 農耕文化를 背景으로 이룩된 것이요, 定住生活를 營爲하면서 始作된 것이다. 한 地域에 農耕定着民이 적고 利用할 수 있는 土地가 넓은 境遇에는 占有土地의 廣狹이나 그 境界 區劃이 그다지 問題 안되지만, 住民이 많고 土地가 充分치 못할 경우에는 土地의 占有와 그 區劃으로 複雜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住民이 增加하면 할수록 土地는 細分되어 나가고, 그 細分된 占有土地를 指稱하는 이름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田地名의 數는 地域의 넓이에 比例하는 것이 아니라, 土地分割의 數에 比例하게 되는 것이다. 넓은 地域에 하나의 田地名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넓이지만 分割이 ละเอียด하면 多數의 田地名이 있을 수도 있다. 같은 넓이의 地域에 田地名의 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土地分割이 細分되었음을 意味한다.

濟州島의 田地名을 보건대 매우 細分되어 있어 稠密하다는 점이 두드러진 特性이다.

## 2. 部落地面과 田地名

事實 濟州島의 田地名이 稠密하다는 점은 하나의 큰 特性이지만 濟州島 全地面이 모두 細分 分割되어 있고 그 地名이 稠密한 것은 아니다. 地理의 背景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土質은 250m 高地 以下가 農耕에 適合하고 漢拏山에 가까울 수록 土質이 各박하다. 그래서 部落도 이 土質이 肥沃한 地帶에 密集되어 있고 田地로서의 土地의 利用度도 높다. 農耕地는 部落周邊에 分布되어 있기 때문에 그 占有의 分割도 細分되어 있게 된다. 反面 250m 高地 以上이 되면 牧野, 林野로 利用하기 때문에 그 占有地域의 分割은 넓게 마련이다. 따라서 田地名의 稠密度도 部落周邊에 걸고 高地를 더할 수록 稀薄하게 된다.

그러면 田地名의 稠密이 어느程度인가를 濟州市 老衡里 廣坪部落을 例로 하여 實際 보기로 하자.

廣坪部落은 濟州市 老衡里의 한 自然部落으로서, 東西의 길으로 보아 老衡里 中間쯤에 位置하고 있다. 東은 동내(東川)를 境界로 하여 老衡里 정춘이(正尊部落)에 接하고 西는 오도롱남로(吾道洞南路) 길을 境界로 老衡里 月山部落에 接해 있으며 南은 中山間道路(웃한길)를 境界로 老衡里 함박이굴(艦舶洞—現在廢洞)에 接해 있으며 北은 호병밭길(路名)을 境界로 梨湖里

오도롱(吾道洞)에 接해 있다. 東西의 길이 約 1km 南北의 길이 約 1.5km의 部落으로서, 中山間道路(웃한길)에서 北을 向하여 두줄기 길이 部落中間을 떨어져 나가다가 下部落(알가름)에 이르러 兩줄기로 합치고 오도롱(吾道洞)으로 통해 내려갔다. 이 두줄기 길을 東쪽에 길을 <동질> 서쪽에 길을 <섯질>이라 하는데 이 두 거릿 길의 몇 地點에 東西로 좁은 골목 길들을 뚫고, 이 길들의 兩側에 住宅들이 응기 종기 떨어져 있다. 現在 世帶數 82에 人口는 388人. 모두 農家들로서 耕作田地는 主로 聚落 周邊에 分布되어 있는데, 모두 밭이며, 하나의 밭의 平均面積은 約 1,000坪으로 이 밭마다 거의 固有의 田地名이 붙여져 있다. 밭의 番地는 따로 되어 있으나 固有田地名이 없는 것이 얼마간 있으나, 이는 分割된지가 그리 오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면 이 部落內의 地名을 우선 列擧하여 보기로 하자.

송굴왓	강알왓	바지가달	지생이빌레	소진이밭	안판이밭
큰새왓	비크릭밭	즌드로	생이밭	새가름	박멜장밭
안장이밭	고비장드로	정지우영	보시우영	덧남밭	시수왓
몽치드로	큰어움	웃가락이네밭	멋체왓	굴왓	정굴남우영
진밭	빌레왓	섯지름우영	못밭	폭남보기	추리왓
앞밭	불킨터	베록우영	알목은터	뿃드로	오로곰밭
들맹이왓	송굴드로	검도리왓	웃목은터	홍시드로	선젼밭
막수왓도	풍생이왓	주중드를	원머들왓	멧구름	정갈릿밭
감낭아진밭	고분자왓	임관이밭	당밭	헤산이드로	종지왓
돌죽은밭	극새왓	강택이터	올래왓	가르단드로	동산밭
굴왓	새구름밭	거릿드로	인새왓	양시터	버리장밭
대방구름	종나물	삼동남빌레	인세왓	시남이드로	다말왓
기정밭	고벨감밭	웅덩이왓	양도리왓	안시터	

이와 같이 우리가 地畵을 붙여 그 占有土地를 區分하듯 地名을 細細하게 붙여서 그 位置와 區域을 區分하고 있다. 그 田地名의 命名方法을 보아도 人爲의 造作的으로 命名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田地의 地形, 地物, 位置, 方位, 事件等を 素材로 命名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地形에서 命名된 것.

송굴왓 : <송굴>은 물이 빠지는 구멍, <왓>은 밭<田>의 音變. 밭 가운데 흘러온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는데서 命名된 것.

강알왓 : <강알>은 사타구니의 뜻. 바지가달 (田名) 밑에 있는 밭이므로 인해서 命名된 것임.

바지가달 : 바지가랭이의 뜻. 밭의 모양이 바지 가랭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서 命名된 것.

비크릭밭 : <비크릭>은 비탈의 뜻. 비탈진 밭이라는데서 命名된 것.

즌드로 : <즌>은 잘다(少)는 뜻이고 <드로>는 넓이가 적은 밭. 작은 밭이라는데서 命名된 것

진밭 : 밭 모양이 긴데서 생긴 이름이다.

송골드로 : <송골왓>과 같으나 밭모양이 작은 것임.

못밭 : 밭에 못(池)이 있다해서 命名된 것임.

고분자왓 : 밭 모양이 굽은 자(曲尺) 모양으로 생긴데서 命名된 것임.

동산밭 : 언덕 위의 밭

새구룽밭 : <구룽>은 溜水池란 뜻으로 <새구룽밭>은 新, 飲料水가 있는 밭이란데서 命名된 것임.

기정밭 : <기정>은 낭떨어지이다. 그러므로 낭떨어지가 있는 밭이라는데서 命名된 것임.

웅덩이밭 : 웅덩이가 있는 밭이라는데서 命名된 것임.

## 2. 地物에서 命名된 것.

정지구영 : <정지>는 亭子木이란 뜻이고 <우영>은 宅池內田이므로 亭子나무가 있는 뒷뜰밭이란데서 命名된 것.

정골남우영 : <정골남>은 正橋木이다. 그러므로 正橋木이 있는 뒷뜰안 밭이란데서 命名된 것

빌레왓 : <빌레>는 石盤이란 뜻. 그러므로 石盤田이란데서 命名된 것임.

폭남고기 : <폭남>은 팽나무의 뜻이고, <고기>는 골목의 뜻이니 팽나무가 있는 골목의 名稱이 밭이 름으로 命名된 것임.

감남아진밭 : <감남>은 柿木이고 <아진>은 앉았다는 뜻이니 감나무가 있는 밭이란데서 命名된 것임.

극새왓 : <극새>는 삼(麻)의 뜻이니 麻田의 뜻으로 命名된 것임.

삼동남빌레 : 삼동나무가 서 있는 石盤이 깔려 있는 밭을 말함.

다말왓 : <다말>은 돌무더기를 말함. 그러므로 돌무더기가 있는 밭이란 뜻이다.

## 3. 位置·方位에서 命名된 것.

앞밭 : 앞에 있는 밭이란 뜻에서 命名됨.

뒷드로 : 뒤에 있는 넓이 적은 밭이란데서 命名된 것임.

알동산왓 : 아래쪽에 있는 언덕밭이란데서 생긴 이름이다.

올래왓 : <올래>는 집의 出入細路이다. 그러므로 細路 곁에 있는 밭이란 뜻에서 命名된 것임

## 4. 人物, 事件등에서 命名된 것.

박별장밭 : <박별장>은 朴別將이란 뜻이니 朴別將의 밭을 意味한다.

안장이밭 : <안장이>는 安掌議란 뜻이니 安掌議의 밭이란 뜻이다.

고비장드로 : <고비장>은 高脾將이니 高脾將의 적은 밭이란 뜻이다.

육가락이네밭 : <육가락>은 손가락이 여섯개 달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 육손이네 밭이란데서 命名된 것임.



불킨터 : <불킨>은 불에 타다는 뜻이니 火災난 밭을 말한다.

알묵은터 : 아래쪽에 있는 옛 집터로 된 밭이란데서 命名된 것.

오로콤밭 : <오로>는 오소리이고 <콤>은 구멍을 뜻한다. 그러므로 오소리 구멍이 있는 밭이란 뜻이다.

막수왓도 : <막수>는 幕舍의 音變, <왓>은 밭, <도>는 入口의 뜻

몰죽은밭 : 말이 죽은 밭이란데서 생긴 이름이다.

강택이터 : 姜氏宅의 집터자리 밭이란데서 由來된 이름.

양시터 : 梁氏 집터자리 밭이란 뜻.

안시터 : 安氏 집터자리 밭.

고별감밭 : 高別監의 밭이란 뜻이다.

以上은 그 語源이 分明한 것만을 옮겨 적은 것이다.

이러한 命名은 部落民 사이에서 自然發生的인 命名으로서, 地番으로써 地點을 識別하는 것과 같이 造作的인 方法이 아니라 그들의 農耕生活속에서 自然히 體得創案한 方法으로 그들의 思考方式과 生活歷史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濟州島民의 部落 生活史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는 이 田地名의 稠密性은 濟州島地名의 두드러진 한 特性이라 하겠다.

## VI 部落名形成의 擴大性

濟州道の 統計에 依하면 濟州道內의 自然部落數는 545部落(濟州年鑑P, 661, 1969刊 濟州年鑑社)에 이른다. 이 自然部落名들은 現在 大部分이 純國語의 原名稱이 남아 있어 呼稱하며 漢字의 借字表記를 併行하고 있으나 一部는 漢字表記 名稱만이 남아 있다. 後者는 勿論 後代的인 變化이고 純國語名稱이 原名임에 틀림 없으나 이들 名稱이 어떻게 하여 形成되었는가 하는 것은 興味로우면서 어려운 문제다. 本項은 그 形成過程을 考察하고 特性을 整理하여 보고자 한다

部落名을 一覽하여 보면 그 語源을 알 수 없는 것도 많으나 山岳, 池沼, 河川, 田地等 基礎地名이 들어나 보이는 것이 많으므로 먼저 이런 角度에서 分類하여 그 資料를 提示하기로 한다

### 1. 資 料

#### ① 山岳名으로 된 것.

가시오름 (加時里) 表善面加時里

눈의 (臥山里) 朝天面臥山里

난의 (蘭山里) 城山面蘭山里

물미 (水山里) 涯月面水山里

신산마루 (新山洞) 濟州市一徒里

집서마루 (新山洞) 濟州市都坪里

안자름 (安坐洞) 表善面 加時里  
長山洞 朝天面 善屹里

오름새끼 (上德泉) 舊左面 德泉里  
城山里 城山面 城山里

② 河川名으로 된 것

도그네 (外都里) 濟州市 外都里  
모르넷가름 (牟老洞) 濟州市 吾羅一洞  
웃므트네 (龍崗洞) 濟州市 龍崗洞  
새넷ㄷ (新川洞) 濟州市 一徒二洞

웃넷기 (新豊里) 城山面 新豊里  
알므트네 (下武洞) 濟州市 寧坪洞  
닥그네 (修根洞) 濟州市 龍潭三洞  
창고네 (倉川里) 安德面 倉川里

③ 池沼名으로 된 것.

빌레못 (新安洞) 朝天面 朝天里  
낮물동 (面水洞) 舊左面 下道里  
물래물 (沙水洞) 濟州市 道頭一洞  
가시나물 (加時洞) 濟州市 加時洞  
세미 (回泉洞) 濟州市 回泉洞  
鳳池洞 舊左面 東金寧里  
消水洞 " 東金寧里  
水基洞 朝天面 臥屹里  
甘水洞 舊左面 坪垵里

물알동네 (前水洞) 舊左面 終達里  
억물 (億水洞) 朝天面 北村里  
동산물동 濟州市 吾羅一洞  
두리물 (斗伊洞) 表善面 加時里  
통천이 (通泉洞) 安德面 柑山里  
漢水洞 舊左面 西金寧里  
束水洞 朝天面 新村里  
大水洞 " 善屹里

④ 田地名으로 된 것

영머리왓 (道頭洞) 表善面 加時里  
모듬밭 (合田洞) 舊左面 細花里  
버쟁이왓 (新山洞) 濟州市 都坪洞  
베리왓 (硯田洞) " 我羅二洞  
장구왓 (長久洞) " 我羅一洞  
벵디 (都坪洞) 濟州市 都坪洞  
벵디 (坪垵洞) 舊左面 坪垵里  
도련드르 (道連洞) 濟州市 道連洞  
가문모살 (玄沙洞) " 梨湖一洞

탈밭동네 (脫田洞) 舊左面 坪垵里  
궤왓 (蘆田洞) 濟州市 梨湖二洞  
아홉굴왓 (九耳田洞) " 吾羅三洞  
큰담밭 (大担洞) " 我羅一洞  
황수왓 (禾秀洞) " 禾北二洞  
벵디가름 (坪垵洞) 城山面 古城里  
너븐드르 (廣坪洞) 濟州市 老衡洞  
새정드르 (興雲洞) " 龍潭二洞  
앞모살동 (前沙洞) 舊左面 上道里  
馬桶洞 朝天面 大屹里

⑤ 浦港名으로 된 것

옛개 (新興里) 朝天面 新興里  
백개 (梨湖里) 濟州市 梨湖里  
설개 (三陽洞) " 三陽一洞

뒷개 (北村里) 朝天面 北村里  
건들개 (健入洞) 濟州市 健入洞  
가물개 (甘水洞) " 三陽二洞



河川名을 部落名으로 擴大시킨 것이다, 가령 濟州市 外都里에는 도그내(都近川)이 있는데 그 川邊에 部落이 形成되자 川名이 그 周邊의 部落名으로 擴大되어 “도그내”라 일컫게 된 것이고 安德面 倉川里는 同里로 흘러가는 “창고내”(倉庫川)가 있어 最初 이 川邊에 入住가 시작되었는데 亦是 部落名도 “창고내”라 하여 現在 倉川里라 表記하고 있는 것이다. “웃넛기”(新豐里)는 웃내(上川)의 가(邊)에 이루어진 部落이므로 그리 呼稱된 것이고 “새넛갯”(新川里)는 그 川邊의 마을이므로 그리 命名된 것이다.

이것들은 本來 川名이었던 것이 그 川邊의 部落의 名稱으로 擴大된 것이다.

3. 池沼名이 部落名으로 化한 것도 飲料水 牛馬用水 등의 池沼를 찾아 그 周圍에 家戶가 서기 시작하여 部落이 形成되자 池沼라는 一地點의 名稱이 그 周邊으로 擴大되어 部落名으로 된 것이다.

4. 田地名이 部落名으로 된 것들은 本來 人家가 없던 밭에 家戶가 들어서자 그 位置를 밭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다. 人家가 한 밭 안에 몇개 들어서고 다시 그 밭의 境界를 넘어서 周邊으로 擴大되어가면서 亦是 그 밭 이름도 擴大되어가서 大部落이 形成되자 部落의 全體를 指稱하는 名稱으로 擴大된 것들이다.

5. 浦名으로 된 部落名은 海岸部落의 것으로서 本來 浦口만을 가리키던 名稱이 部落名으로 轉用된 것들이다.

가령, 朝天面 北村里는 처음 設村當時<화원>이라는 밭에 몇戶가 있어, 現浦口를 뒷쪽에 있는 개라 하여 “뒷개”라 呼稱했었는데 점점 部落이 이 浦口附近으로 擴大되고, 이 浦口名을 그 周邊의 部落名으로 擴大시켜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後에 “뒷개”의 漢字表記를 “北浦里”라 하다가 兩班村에 浦字를 씌울 品格이 없다 하여 北村으로 表記를 고쳤다. 이와 같이 浦의 뜻인 ○○개로 일컫는 地名들은 모두 本來 浦口만을 일컫던 이름이 그 周邊의 部落全體에 擴大되어 部落名으로 化한 것이다.

6. 藪, 林名이 部落名으로 된 것들은 藪, 林에 部落이 이루어 지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濟州島 方言의 “꽃”은 덩불이 옥어진 숲을 의미하는 말로서, ㄱ는꽃(細花里), 큰꽃도(大林里)는 本來 숲(藪)의 이름이었고, 한수풀(翰林里)은 큰수풀의 뜻으로 하나의 林野名이었다. 이 藪, 林의 周邊에 人家가 서기 시작하자, 그 所在를 周邊의 藪, 林의 이름으로 指稱하게 되고 나아가서 大部落이 形成됨에 따라 그 藪林名은 部落全體로 擴大되어 部落名으로 化한 것이다. 翰林里의 翰林은 現在 邑名에까지 擴大되어 翰林邑이라 일컫게 되고 邑內 全體의 里를 指稱하는 이름으로까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많은 部落名은 山岳名, 河川名, 池沼名, 田地名등 어느 한 地點만을 指稱하던 名稱이던 것이 그 周邊으로 점점 擴大되어 部落全體의 名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한 地點의 名稱이 周圍地面으로 擴大되는 現象을 地名의 擴大性이라 하려는 바, 이런 現象은 唯獨 部

落名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田畠, 牧野 등 이름에도 亦是 있는 現象이다. 그러나 그것이 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部落名에서요, 그러므로 部落名 形成의 한 特性이라 하게 되는 것이다.

濟州島의 部落名이 山岳, 河川, 池沼, 田地, 浦港名 등에서 擴大되어 이룩된 것이 많음은 濟州島의 聚落의 形成과 그 生業의 實態가 그대로 反映된 것이라 하였다.

## VII 結 語

以上을 通해서 濟州島 地名의 特性을 밝히 보았으나 극히 一部分에 그친 것이 더 좀더 細密히 調査한다면 아직도 많은 問題點을 發見할 수 있을 줄 믿는다. 本論에서 濟州島地名의 特性으로 들어낸 것은 包括地名에 있어서의 重層性, 地名一般에 있어서의 固有語名의 保存, 田地名의 稠密性, 部落名 形成에 있어서의 擴大性 등이 있다. 이 特性은 濟州島地名의 特性의 一部를 指摘한데 不遇한 것인 同時에, 또 濟州島地名에만 限定된 性格인 것도 아니다. 卽 包括地名에 있어서의 重層性이나 部落名 形成에 있어서의 擴大性 등은 濟州島 地名에만 該當되는 것이 아니라, 地名一般의 本質의 性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性格은 濟州島地名의 特性抽出에서 地名一般의 性格을 發見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指摘한 特性 가운데 固有語地名의 保存性이나 田地名의 稠密性 등은 濟州島의 地理的, 歷史的 背景에서 形成되고 傳承된, 濟州島 地名의 두드러진 特性이라 斷言할 수 있다.

本土에도 固有語地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濟州島에서는 本土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산(生動하는) 地名, 다시 말해서 흠냄새가 그대로 풍기는 原初的인 生活의 歷史가 고스란히 담긴 地名을 數的으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田地名에 나타난 稠密性은 濟州島의 地域의 特性에서 形成된 農村生活의 根源을 엿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農民의 素朴한 生活感情을 抽出해 낼 수 있는 濟州島 地名의 特有的 性格이다.

本稿에서의 田地名의 稠密性考察은 老衡里 가운데의 一自然部落만을 標本으로 삼아 살폈지만 이것을 全島的으로 調査하려면 많은 年數가 必要할 것이며 其他 地名에 있어서도 철저를 期할려면 오랜 時日을 要한다. 急한대로 一部 調査만을 가지고 그 特性을 究明하였기 때문에 未洽한 點이 許多하였을 줄 생각하나 後에 稿를 달리하여 좀더 細密한 調査를 期約하는 바다. 綜合하여 再言하면 濟州島地名은 漢字文化의 侵蝕을 덜 받아 우리 本然의 姿態로서의 地名의 모습을 많이, 그리고 생생히 保存하여 있고, 濟州島民의 生活史와 生活相, 그리고 生活感情을 窺知할 수 있는 無形의 文化財이다. 固有語名이 사라지기 前에 빨리 蒐集해 두지 않으면 안 될 使命感을 여기에서 切感하게 되며 이 地名의 蒐集研究를 通하여 地名의 本質의 性格의 究明과 民族의 生活史와 生活感情을 解明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믿는다.

## Summary

# A Study of Place Names in Jeju-Island

— With Emphasis on Their Characteristic Features —

Shim Yeo-taek

The geographical conditions and historical background have made the names of the places in the island embody the following characteristic features :

Feature 1. The names of the individual mountains, rivers, ponds, swamps and fields are overlapped by the names of their adjacent farming settlements or villages, or by those of administrative divisions such as ri, eup, myun, city or country.

Feature 2. The names of villages and settlements are usually derived from that of a particular mountain, river, pond or swamp located in that village. The name of a smaller place gradually expanded its referent, because of its conspicuousness, to cover its adjacent area and finally the whole village.

Feature 3. Only a small number of place names were given in the form of Chinese characters and a majority of place names were given in the vernacular language, and still retain the older forms of the Korean language.

Feature 4. The traditional names of fields or tracts which, in fact, designate the subdivisions of the village are used as often as the official lot number.

The first two features are found not only in Jeju-Do but also in the mainland and they can be regarded as the common and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lace names;

whereas the last two features are distinctive one only found in Jeju-Do. These features are reflecting the history of the Jeju-Do people and the condition and style of their living on an outlying island.